

## EC-자유화의 물꼬를 트다

앤드류 아도니스와 앤드류 힐은 통신시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유럽위원회 계획을 조사하고 있다.

유럽 공동체의 전기통신 장관들이 브뤼셀에 모여 EC의 모든 전화망을 개방, 경쟁하도록 하는 계획(안)에 대해 협정할 것이다 ; 전기통신서비스를 위한 유럽화폐단위 Ecullobn(±87bn) 시장의 자유화에 따른 불가피성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진보, 강대국의 비 EC 운용자들로부터의 압력, 단일시장의 모험, 민영화의 영향 및 정부 주도의 전기통신 독점에 대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정이 되고 있다.

자유화의 목적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부 및 국가의 전기통신 독점에 상당한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년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및 이탈리아는 유럽 재판소에서 전기통신 장비 및 특정 서비스를 위한 시장을 자유화하기 위해 강대 위원국들에게 도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전기통신위원회 이사회 의장인 Michel Carpentier는 1983년 임명 당시만 해도 빠른 성과를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이들 국가들은 민간운용자-비 EC 운용자들을 포함한 그들 소유의 시장을 경쟁하도록 개방한다면-에게 허용하는 위원회의 계획에 공감하고 있지만 개발 경쟁의 목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많은 장애로 난항을 거듭할 것이 예상된다.

Carpentier에 따르면 : "거의 모든 회원국이나 운용자들이 자유화를 주창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제는 시기와 방법" 이라고 말한다.

첫번째 문제인 위원회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1998.1.1.은 국내 및 국제 전화망을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 서비스의 완전한 자유화에 대비해 통신 장관들이 최근 협의에 의해 설정한 날이다.

위원회에서는 130개 회사, 정규회원, 정부 및 사용자의 회담은 중간단계-모든 EC의 주변 국가간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개방한다-로서 필요치 않다고 말한다.

대신 향후 3년동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바라고 있다.

- 기존의 기술적 제안을 빨리 채택하여 위성 통신을 자유화시키고 새로운 전기통신 운용자와의 순조로운 접근을 허용함과 동시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지상망을 설치하는 것이다.
- 케이블 TV, 철로 또는 전기 그리드와 같은 대체 통신망이 전기통신 서비스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 기존의 하부구조와 독자적으로 망을 설치할 수 있는 회사간에 경쟁해야 하는 난처한 문제를 연구

이들 관측에 따르면 위원회가 기존의 하부구조를 이용한 "음성" 트래픽 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향후 2년동안에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나은 자유화는 위원회의 연구결과에도 의존하지만, 전기통신 시장의 급속한 팽창과 다양화에 따라 스스로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최근 Daiwa 리서치 연구소에 의한 산업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유럽의 급성장하는 주요 산업은 전기통신분야가 될 것이며 2000년대에는 국내 총 생산량의 8.5%씩 매년 평균 성장하고 부분별 구성으로 4.5%의 성장 속도를 기록하여 1991년 수치의 2배가 된다는 것이다.

이사회의 제안에 대한 교착상태는 시기상조이며, 예정대로 폐지가 되면 UK는 덴마크 및 네덜란드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는 가장 선도적인 자유국가이며, 덴마크는 합법적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내년에 자유화하고 7월에 EC회의를 개최한다. 전기통신장관들의 두번째 회의는 6월 16일

에 개최하며 공식적인 위원회의 기구 구상으로 지지받아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프랑스, 벨기에, 독일은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너무 서둘러 일을 진행시키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회의적 행정권에 대해서는 향후 자유화의 토대가 되는 기존의 법규를 구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프랑스 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렇다. 자유화는 유럽의 운용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상황에 불과하며 만일 우리가 속히 자유화를 진행하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유럽의 운용자들이 아니라 AT&T(미국) 같은 개인적인 국외자가 이익을 보게 된다”

위원회의 경쟁(competition)을 담당하고 있는 벨기에의 사회주의자 Karel Van Miert와 산업 담당자인 Martin Bangermann은 타협적이며, 자유시장의 재정적인 안정 및 표준을 희생시키지 않고, 사전에 전기통신 장관들이 자유화를 위한 필요조건을 널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호하도록 재촉할 것이다 : 그리고 미개발된 망을 가진 국가들이 주변의 부유한 국가들과 받을 맞추기 위해 최소 2년을 계획해야 한다고 한다.

넉넉하지 못한 위원회의 국가들은 이런 특권을 환영하여 EC기금으로 전화망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Mr. Carpentier는 1998년도 위원회의 예정표를 대규모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5년이 정부 소유 전기통신 회사들이 적응하는데 오랜 기간이 아니지만 위원회의 제안을 운용자,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협력하면 실행될 수 있는 단일안으로 보고 있으며 심의회가 많은 부문에서 정치적·기술적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에 최선의 상황하에서 기계가 조업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국가 소유의 운용자들은 1998년부터 치열한 경쟁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가입자 전원을 위한 서비스를 갖추어야 하는데 공중망 접근 임무를 통해서 적절히 보완될 수 없음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Deutsche Telekom은 향후 4년간 DM 60bn (£24.3bn)의 동독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을 위탁받고 있으며 국제 및 장거리 호출에 대한 초기 경쟁이 국내(로컬)전화의

국가간 공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텔레콤은 특정분야 서비스의 자유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었으면서도 공중 운용자들이 자유시장의 엄격한 요금구조에 적응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실제 가능한 요금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국의 주요 운용기관인 영국 텔레콤과 Cable and Wireless사는 EC운용자들 중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로 위원회의 소심함을 비난하고 있다 : 특히 서비스 범위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경쟁을 위해서 회사의 능력을 강화시켜, 음성 트래픽으로부터 하부구조까지 경쟁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BT의장인 Mr. Iain Vallance에 따르면 : 전기통신의 독점은 빠르게 움직이고 성장하는 1990년대 세계 시장에서의 위험한 착오이므로 재처방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BT의 태도는 소비자와 사기업의 합병이며 자유화 이후 10여년간 UK회사가 시장이나 시장압력을 따르는 규제자의 노력에 더 이상 이방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영국의 텔레콤 감시인인 Oftel은 UK의 독립적 공익 조정자이며 최초의 주장자이다. 반면 Cable and Wireless사는 국내 BT에 대항 경쟁하기 위해 1984년에 허가받은 국제 운용자로 UK산업시장에 기지를 설립해 국가 대부분에 이르는 망과 결합, 산업 및 주거시장의 10% 몫을 요구하고 있어 케이블 TV회사들은 지역 데이터 및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Cable 회사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지 겨우 1년만에 30개 공급업체가 상호간에 거의 150,000에 이르는 회선을 설치했다.

BT는 자유화를 추종하는 것이 유럽 대응국들로부터 시장 몫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화는 기존 산업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전용선, 새로운 기술 및 “전세계적인 출처”에서 자신들의 망으로 주도하려고 대규모 계획을 구성하고 있다 - 전화, 데이터, 유지 보수 및 기타 부가가치망 서비스에 대해 “휴지” 협정을 외국 회사에 제공하는 것이다. BT는 신출내기 망관리 회사인 Syncordia를 경영하고, US 공중 통신망과의 직접 접근을 위해 AT&T

사와 경쟁하고 있다.

UK의 경험은 다음의 논점을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 : 사유화인가? - 혹은 최소한의 정부구조내에서 자발적인 존재로 전기통신회사의 진화- 자유화를 위한 시동으로써의 자체 행위인가?

유럽의 낡은 양식의 양도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우편 및 전기통신운용자(PTOs)가 가장 근접하므로 표결 승인 절차는 적절하다. 4년전만해도 거의 모든 유럽의 PTOs가 정부부서에 의해 수행되었고 그들의 운용 및 재정을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정부부처에서 수행되었다. 그이후 대부분 국가 소유로 제한된 회사들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되고 있으며 완전 민영화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경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정부·회사 양쪽이 연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PTO를 보물단지화하는 것을 중지하고 일정한 거리에서 관리자료를 투입하기 시작하면 경쟁함에 따른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의 경우 -개인 소유인 Telefonica는 기본 음성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다. -에는 이런 특성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나 최근들어 시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영국이나 미국에서만은 그렇지 않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핀란드의 기본 변화는 정부와 결정하여 느슨하고 긴밀한 협력하에, 자유화되어 가고 있다.

핀란드의 개혁은 유럽에서 가장 경쟁적인 시장인 고정회선 "음성" 서비스에서 일어날 수 있으므로 EC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6년 전만 해도 핀란드 정부는 전기통신 부서의 규제 및 운용기능을 분리했고 전기통신 산업에 대한 장비 및 부가가치 분야를 자유화했다. 1990년대 핀란드 PTO는 정부기업으로 전환되어 정부예산에서 재정상으로 분리되었으며 PTO의 유한회사로의 전환은 핀란드 의회에서 입법 예고중에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정부소유로 운영되었지만 조만간 사유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내년 1월에 핀란드는 지역 및 중계 호출의 두 가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며 핀란드인 가입자의 약 2/3에 대한 지역 호출을 서비스하는 49개 핀란드 사설 지역 회사들은 그들 망의 중계

경로로 텔레콤 핀란드(TF)와 경쟁이 허용되는 단일회사를 조직하였다.

TF는 부분적으로 핀란드 국가의 지역 호출 경쟁을 허가받아 상호간 조성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당시 민간운용자들이 한 것처럼 최초 지역간 요금원칙을 적용하여 요금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정치적 모순인가? (위원회의 대화, 기록, 주변지역 또는 국가의 소형 및 미개발 망에 대한 특별협정 및 과도기에 대한 회답)

"정부는 그들의 일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나 TF의 소비자 서비스 관리자인 Mikko Dirinen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다.

지난 3년동안 TF는 에스토니아에 새로운 고정통신망을 설립하기 위해 여러 발틱국가와 북서러시아의 많은 합동기업들과 협력하여 해외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그러한 주변 국가간의 활동은 민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유럽 전역을 발전시킬 것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 전기통신회사와 맞서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주로 협력체제 및 합동기업 형태를 취할 것이다. 그리이스 정부의 경우 정부소유 전기통신회사 주주지분의 49%까지를 매각하려 하고 있으며 이 대부분은 관리기술 및 실제 투자를 제공하는 해외운용자가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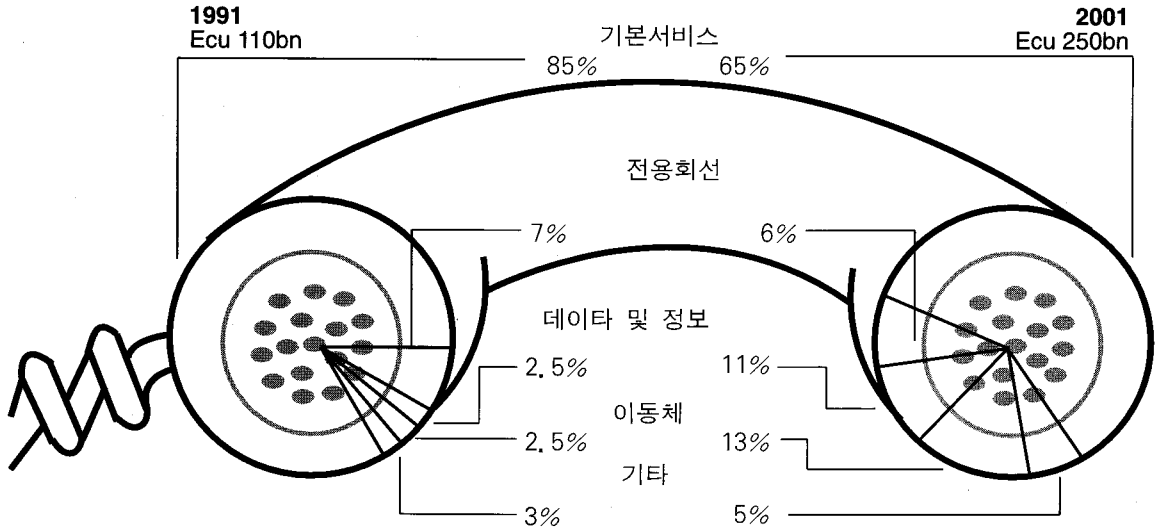
여기저기 즉 독일과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도 민영화를 지지하는 원동력으로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alomon은 총자산 \$50bn (£33bn)을 초과한 회사들이 향후 3년내 주주지분 모집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 초기에는 신규투자에 \$10bn (£6.6bn) 이상을 양도했다.

2000년대 전기통신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석자들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산업에 5개 정도의 특별 사업자들이 산업 망관리 29를 비롯해 특히 이동, 무선과 케이블 사업자들간의 지역범위 망관리를 제공한다고 한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John Hicks경은 독점의 최대 이익은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전기통신 독점자들에게 더 이상 평화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경쟁용 다이얼 'C']

유럽의 잠정적인 전기통신 성장



EC/스칸디나비아인 전기통신 운용자

인용회사	국가소유의 법인	정부구조내외 자치체
UK	스웨덴 (93년7월부터)	독일
스페인	덴마크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홀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포르투갈	

\* 정부에 의해 유치되는 이해관계를 조정  
\*\*정세변화에 대해 미결정적인 입법

전기통신 경쟁 : 성장 비교

	1993		1997*	
	경쟁으로 드러난 총수입의 %	경쟁으로 유치된 몫	경쟁으로 드러난 총수입의 %	경쟁으로 유치된 몫 (모든 서비스)
UK (BT)	100	10%	100	22%
독일	6-8	negl.	30	3%
프랑스	6-8	negl.	30	4%
벨기에	6-8	negl.	30	1%
스웨덴	80	5%	100	20%
일본 (KDD)	100	17%	100	25%
일본 (NTT)	50	7%	50	15%
미국 (AT&T장거리)	100	38%	100	45%

출처 : Daiwa

\* 확실한 평가치